

“장흥댐 자연경관 연계 체류형 관광지 조성한다”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장흥군이 장흥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장흥댐 인근은 지난 2006년 댐 준공 이후 자연환경이 잘 보존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흥군은 장흥댐 인근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최근에는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댐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장흥군은 체류형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장흥댐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유치자연휴양림,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중간 보고회와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수립된 의견을 검토해 도

출된 사업과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됐다.

장흥댐을 연계한 생태관광 예술여행지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생태탐방로, 출렁다리, 전망대, 휴게시설 정비 등의 세부사업이 계획됐다. 도출된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자연친화적인 접근에 소홀함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신속한 사업 실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과 협력해 2023년 수계기금, 관광개발사업,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등 신규사업 반영과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댐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세계적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두연 기자



장흥군은 장흥댐 인근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최근에는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댐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장흥군 제공

완도군, 가족단위 공연 호응

완도군과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공연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 예술 단체의 우수 공연을 상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군 단위 및 문화소외계층 등에도 폭넓게 제공하고자 추진한다.

완도군은 국비 6천만 원을 포함한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등 가족 단위를 위한 4개의 공연을 무료로 개최한다.

지난 19일에는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3D)’가 개최됐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 3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루이스 캐럴의 원작을 입체적인 영상으로 선보여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은 실감 나는 콘텐츠로 재미를 얻었다는 호평이 많았다.

완도군 관계자는 “아이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경험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나영 기자

해남군, 전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해남군은 11월 7일 해남군민광장 일원에서 ‘202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경제의 현황을 되돌아보고,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해 추진해 오다 올해 처음 시군 개최로 선정됐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행사로 축소되거나 비대면 행사로 치러왔던 행사를 3년만에 전면 대면행사로 전환해 22개 시군 사회적경제기업인과 전남도민, 해남군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기념식을 통해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과 실천 서약식, 기부금 전달 등이 진행되며 사회적경제와 ESG를 주제로 한 교양강좌

와 전남 사회적경제 판로 활성화 방안 포럼 등 학술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60여개 부스가 참여해 생산 제품 전시와 판매 홍보를 실시하며, 각종 체험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예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도립극악단과 사회적기업, 지역단체의 문화예술공연 등도 식전행사로 열리며, 22개 시군 기업인들 간 소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인 명랑운동회’와 사회적경제 퀴즈 한마당, 토크이벤트,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불평등, 빈부격차, 일자리, 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해남군에는 사회적기업 14개, 마을기업 19개 등 110개의 기업이 운영 중이다. /백종욱 기자

보성,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접수

보성군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해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1인당 매월 90~110만 원(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기계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류,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자격 요건은 △2023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청년어업인(1983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보

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금융기관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1월 11일까지고 사업희망자는 군청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11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1차 서류, 2차 면접)를 거쳐 12월 중 사업 대상자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강중수 기자

진도,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진도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보행자 최우선의 선진교통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진도경찰서,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진도읍 철마광장 일원에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최근 펼쳤다.

참여자들은 진도읍 일대를 순회하면서 정지선 지키기, 불법 주·정차 5대 금지구역 안내, 어린이 보행안전구치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 NO 무단횡단 NO’ 라는 주제로 ▲교통법규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어깨띠 착용과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해 캠페인의 효과를 높였다. /이현일 기자

고흥군, 가뭄 극복 긴급대책 보고회 개최

고흥군은 최근 공영민 고흥군수 주재로 NH농협 고흥군지부장, 각 지역농협 조합장, 군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가을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유자, 조생양파, 마늘 등 일부 발작물 생

육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대책 실행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은 단계별 가뭄대책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와 농작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형 농업용 관정 및 하천 하상

굴착을 통한 수원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면 조생양파 단지를 방문해 가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용수 공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서 군 살수차와 소방서 지원차량, 민간 레미콘 업체 급수차량을 긴급 투입해 용수를 공급하기도 했다. /이유빈 기자

